

美, '한국車 관세 15%' 발효…관보 “11월부터 소급적용”

항공기·부품, 목재 지난달 14일자 소급인하…관보 정식제재 하루앞서 사전제재 4월 개시 한미무역협상 일단락…‘3천500억불 대미투자·관세인하’ 합의 이행국면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계재로, 공식 계재는 4일이뤄진다.

관보 공식 계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천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 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 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오전 12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

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 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함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리농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

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이 실행됐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동맹의 새로운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선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등 4개국을 강타한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1천400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지난 2일(현지시간) 북수마트라 아체 타미양의 쿠알라 심팡 마을에서 홍수 피해를 입은 가옥들 모습. /AFP=연합뉴스

‘홍수·산사태’ 인니·스리랑카·태국 사망자 1천400여 명

인니·스리랑카 실종자도 1천명 육박

최근 심한 폭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스리랑카와 태국 등지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1천400명을 넘어서졌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폭우가 내린 뒤 일어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 3개 주에서 780명이 숨졌다.

또 스리랑카에서 474명이, 태국에서 185명이 각각 사망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도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 아직 1천명 가까이 이가 실종된 상태여서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 사

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은 도로와 다리가 끊겨 여전히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북수마트라주, 서수마트리주, 아체주에서 330만명가량이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일부 남부 지역에 쏟아진 태국에서는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피해 지역 대부분에서 수도와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태국 정부는 홍수 피해를 본 12만가구에 3천1 30만달러(약 460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그나마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아 긴급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구조 작업과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지만, 2022년 국가 부도 사태로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 중인 스리랑카는 이미 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스리랑카는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지원에 나섰다.

미국도 200만달러(약 3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스리랑카에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별목을 비롯한 난개발과 부실한 재난 방지 시스템까지 더해져 피해가 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인니·스리랑카 실종자도 1천명 육박

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은 도로와 다리가 끊겨 여전히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북수마트라주, 서수마트리주, 아체주에서 330만명가량이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일부 남부 지역에 쏟아진 태국에서는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피해 지역 대부분에서 수도와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태국 정부는 홍수 피해를 본 12만가구에 3천1 30만달러(약 460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그나마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아 긴급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구조 작업과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지만, 2022년 국가 부도 사태로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 중인 스리랑카는 이미 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스리랑카는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지원에 나섰다.

미국도 200만달러(약 3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스리랑카에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별목을 비롯한 난개발과 부실한 재난 방지 시스템까지 더해져 피해가 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인니·스리랑카 실종자도 1천명 육박

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은 도로와 다리가 끊겨 여전히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북수마트라주, 서수마트리주, 아체주에서 330만명가량이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일부 남부 지역에 쏟아진 태국에서는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피해 지역 대부분에서 수도와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태국 정부는 홍수 피해를 본 12만가구에 3천1 30만달러(약 460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그나마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아 긴급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구조 작업과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지만, 2022년 국가 부도 사태로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 중인 스리랑카는 이미 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스리랑카는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지원에 나섰다.

미국도 200만달러(약 3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스리랑카에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별목을 비롯한 난개발과 부실한 재난 방지 시스템까지 더해져 피해가 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인니·스리랑카 실종자도 1천명 육박

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은 도로와 다리가 끊겨 여전히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북수마트라주, 서수마트리주, 아체주에서 330만명가량이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일부 남부 지역에 쏟아진 태국에서는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피해 지역 대부분에서 수도와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태국 정부는 홍수 피해를 본 12만가구에 3천1 30만달러(약 460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그나마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아 긴급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구조 작업과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지만, 2022년 국가 부도 사태로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 중인 스리랑카는 이미 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스리랑카는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지원에 나섰다.

미국도 200만달러(약 3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스리랑카에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별목을 비롯한 난개발과 부실한 재난 방지 시스템까지 더해져 피해가 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인니·스리랑카 실종자도 1천명 육박

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은 도로와 다리가 끊겨 여전히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북수마트라주, 서수마트리주, 아체주에서 330만명가량이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일부 남부 지역에 쏟아진 태국에서는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피해 지역 대부분에서 수도와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태국 정부는 홍수 피해를 본 12만가구에 3천1 30만달러(약 460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그나마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아 긴급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구조 작업과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지만, 2022년 국가 부도 사태로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 중인 스리랑카는 이미 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스리랑카는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지원에 나섰다.

미국도 200만달러(약 3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스리랑카에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별목을 비롯한 난개발과 부실한 재난 방지 시스템까지 더해져 피해가 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인니·스리랑카 실종자도 1천명 육박

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은 도로와 다리가 끊겨 여전히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북수마트라주, 서수마트리주, 아체주에서 330만명가량이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일부 남부 지역에 쏟아진 태국에서는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피해 지역 대부분에서 수도와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태국 정부는 홍수 피해를 본 12만가구에 3천1 30만달러(약 460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그나마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아 긴급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구조 작업과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지만, 2022년 국가 부도 사태로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 중인 스리랑카는 이미 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스리랑카는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지원에 나섰다.

미국도 200만달러(약 3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스리랑카에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별목을 비롯한 난개발과 부실한 재난 방지 시스템까지 더해져 피해가 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인니·스리랑카 실종자도 1천명 육박

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은 도로와 다리가 끊겨 여전히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북수마트라주, 서수마트리주, 아체주에서 330만명가량이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일부 남부 지역에 쏟아진 태국에서는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피해 지역 대부분에서 수도와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태국 정부는 홍수 피해를 본 12만가구에 3천1 30만달러(약 460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